

###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가

2014.05.12 | 이은경 연구원 | eundust@saesayon.org

세월호 침몰의 배경에는 선원들의 비도덕성이나 부실한 관리감독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가경쟁으로 수익을 위해 안전을 내팽개쳐야 하는 선박산업이 있었고, 그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던 행정부가 있었다. 사회의 이런 규율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행정이며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분노하고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사소한 것들에만 분노해온 것은 아닐까?

#### 장면 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

[그림 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포털 기사들

### I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최종수정 2014.04.24

이슈 홈
마이피플

**규제개혁, 어떻게 진행되나**

**기재부 "규제개혁 혜택 전국민에 돌아가도록 추진"**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전 국민에게 규제개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연립뉴스 | 2014.04.18 09:12

- ▶ "우리도 빼달라" 규제개혁 벌써 '후퇴' 한국경제 | 2014.04.14 03:36
- ▶ **술 산업까지 '마구잡이'로 규제 완화?** 국민일보 | 2014.04.09 02:02
- ▶ 주유소의 부대시설 허용면적 2배로 늘려 연립뉴스 | 2014.04.08 10:48
- ▶ 파주출판단지에 북카페 생긴다 '대못' 규제 개선 연립뉴스 | 2014.04.08 09:53
- ▶ '크루즈선 공영 연예인' '선원' 아냐'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 2014.04.08 09:33

**남아있는 비합리적 규제들**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 사려면 산너머 산**  
 정부가 외국인들의 국내 온라인 쇼핑을 이용을 막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인증서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 연립뉴스 | 2014.04.24 07:02

- ▶ "대형 할인점 휴무제가 '암덩어리' 규제로 왜곡" 경향신문 | 2014.04.08 21:27
- ▶ '카드 결제 길 막힌' 4대 보험료..수수료 사업장 부담 문화일보 | 2014.04.03 15:01
- ▶ "폐수, 먹는 물보다 더 깨끗이 정화하라" 공장 폐쇄 문화일보 | 2014.04.08 14:21
- ▶ "특정유해물질 배출, 방류수 기준으로 바꿔야" 문화일보 | 2014.04.08 14:21
- ▶ 사·도별 학원 최소면적 달라..편법 난무 문화일보 | 2014.04.08 14:21

**국토부, 규제개혁**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하반기 폐지"**  
 을 하반기부터 과밀억제권역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인천 경제... 세계일보 | 2014.04.16 20:19

- ▶ 전용 85㎡ 이하 1주택자에 주택조합 가입 허용 연립뉴스 | 2014.04.16 12:03
- ▶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13년만에 폐지 이데일리 | 2014.04.16 14:28
- ▶ 서승환 국토장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연립뉴스 | 2014.04.08 10:43
- ▶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나왔다..어떤 제도? 연립뉴스 | 2014.04.04 15:17
- ▶ 국토부 규제 5만5000점..도시분야 15%육박 최고 헤럴드경제 | 2014.04.04 16:46

**농식품부, 규제개혁**  
**농식품부, 3년간 130개 규제 철폐..규제총량제 도입**

포털에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으로 검색을 하면 매우 많은 기사들이 쏟아진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그 기세가 약간 꺾이기는 했지만 ‘규제완화’ 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 장면 2. 손톱 밑 가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해 작년 9월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만들었고 올해 3월 101건의 ‘손톱 밑 가시’ 를 척결했다는 성과보고를 했다.<sup>1)</sup>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자.

[표 1]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 1

- 공장을 위해 공원에 도로내기
  - 상수원보호구역 공장 허용
- 「수도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매수인 및 경락인 등에 한하여 공장 증설 허용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그림2]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 중 공장을 위해 공원에 도로내기



위의 표와 그림에서 보다시피 내용 대부분이 공장건설과 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1) <http://www.smartregulation.or.kr/Reg/Activity/appl/CoverView.asp> 참고

로 환경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본 규제들을 앞장서서 없애고 있다.

### 장면 3.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

“이명박 정부 대불산단 전봇대 뽑아”

“이명박 대통령 하루 200대 톨게이트 개선”

혹시 위와 같은 뉴스 타이틀을 기억하시는지.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가 ‘손톱 밑 가시’로 바뀌었을 뿐,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의 실상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실현이 대부분이었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 기간 내 내 대기업집중과 토지 개발, 수도권 집중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각종 안전사고들이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표 2]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관련 내용

- 법인세 인하 → 대기업 대규모 감세
- 제 2롯데월드 허가 →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 등 안전성 문제 심각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및 골목상권까지 침입
- 개발제한구역 해제 →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4대강 사업추진
- 방송 산업 진입규제 → 종편 허용

### 장면 4. 규제완화의 탈을 쓴 의료민영화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도 규제완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정부는 규제완화를 앞세운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3월 20일 발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했고, 의료광고에

[표 3]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중 의료민영화 관련 내용

-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허가절차 간소화
-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임상시험방법 개선
- 의료광고 규제방식이 포지티브(Positive System)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System)방식으로 개선
- 혈압계 검정절차 간소화
-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물질보건의료 작성·비치 의무 면제
- 의료기기 전파관련 인증절차 개선

관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됐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제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종합건의』에서는 핵심 10대 규제개혁과제 중에 의료민영화에 관한 규제내용이 다음과 같이 4개에 달한다.

[표 4]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종합건의』 중

- 도심 숙박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관광진흥법」 → 메디텔허용, 추진됨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힘
-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 의료법 개정없이 상반기준에 가이드라인으로 하겠다고 시도 중
-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  
→ 시범사업 후 추진계획 발표함

### 장면 5. 의료광고 전성시대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의료광고 규제완화이다. 의료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료민영화는 2005년 참여정부시절 처음 제기되었고 그 이후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왔다. 하지만 사소한 것으로 보였던 규제들은 서서히 없어져 왔고, 대표적 사례가 2007년에 통과시킨 의료광고 허용이다. 그 결과는? 의료광고는 죽어가던 광고시장의 단비가 되었다. 지하철, 버스, 인터넷에 가장 많은 광고는 의료광고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달 만에 10키로 감량”, “팔자주름 한번 치료로 90살까지”, “수술 다음날 출근 가능” 등등 과장 허위 광고가 넘쳐나고 성형과 미용은 이 시대의 필수품이 되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그나마 내용과 방법을 할 수 있는 몇 가지로 정해놓았던 것을 일부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의료광고의 홍수 속에 생활하게 된 것이다.

의료광고를 허용하자 너도나도 광고를 시작했고 성형이나 비만을 넘어 당뇨, 고혈압, 감기와 같은 필수 치료과목까지 광고에 가세했다. 그 결과, 광고는 디폴트가 되었다. 광고를 하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것이다. 그 효과는? 광고를 해야만 하는 의료기관도 힘들고 그 비용을 온전히 담당해야 하는 환자도 힘들다. 더 큰 문제는 과장, 허위 광고로 인해 환자 안전마저 위협해진다는 것이다. 심각한 성형수술 및 다이어트 후유증, 다른 나라의 몇 배가 넘는 검진과 수술 등은 과도한 의료광고가 초래한 결과이다.

이런 것이 규제완화의 본질이다. 규제는 불필요한 걸림돌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 공정, 환경,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기본 규율이다. 기업과 고소득층이 정당한 세

금을 내고, 공장이 기본 안전설비와 작업 환경을 준수하고, 선박회사가 안전을 위해 선박관리와 운영의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 등은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생명줄' 인 것이다.

의료는 어떠한가? 환자들은 내가 MRI를 찍어야 하는지, 갑상선 암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약을 먹으려면 먹어야 하고 수술을 받으려면 받아야 한다. 돈도 매우 많이 든다. 생명에 필수적이면서도 스스로 알아서 '현명한 소비' 를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는 공공이 돈을 대고, 공공이 합리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한다. 이를 시장에 맡기면? 미국과 같이 국내 총생산량의 18%를 의료에 쓰면서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5천만명에 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민영화가 가져올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다.

### 장면 6.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가?

우리는 대불산단의 전봇대에 분노하고, 복잡한 행정서류에 분노한다. KTX 직원월급 6천만원에 분노하며 눈치만 보는 공무원에 분노한다. 레이건이 작은 정부,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사용했던 전략은 '복지권' 이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복지혜택을 들킨 받아서 캐딜락을 몰고 다니는 흑인여성의 사례로 분노를 자아낸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여성은 없었고, 이와 같은 복지권 전략으로 결국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의 배경에는 선원들의 비도덕성이나 부실한 관리감독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가경쟁으로 수익을 위해 안전을 내팽개쳐야 하는 선박산업이 있었고, 그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던 행정부가 있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채운 회전문인사가 있었고,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을 합법화했던 노동법이 있었다. 사회의 이런 규율들을 제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행정이며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분노하고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면서 사소한 것들에만 분노해온 것은 아닐까?

여기, 김수영의 시를 한 편 소개한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넌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 당당하게  
불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번째 네번째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럴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 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비켜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우리의 분노가 사소한 것이 아닌, 잘못된 시스템과 구조에 대한 개혁에의 분노로 바뀌기를, 세월호 참사의 영정들 앞에 기원해본다. 🙏